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6 0304

Vol. 116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스페셜기획_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봄 햇살처럼, 훈훈한 좌담회 Today INHA_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선정 Health touch_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이





건강하시요, 행복하시요

얼음새꽃

아직 잔설 그득한 겨울 골짜기
 다시금 삭풍 불고 나무들 울다
 뽕뽕 얼었던 냇강도 누군가 그리워
 바닥부터 조금씩 물길을 열어 흐르고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 올리는 생명의 경이
 차디찬 계절의 끝을 온몸으로 지탱하는 가녀린 새순
 마침내 노오란 꽃망울 머금어 터뜨리는
 겨울 냇강, 절벽, 골짜기 바위틈의
 들꽃, 들꽃들
 저만치서 홀로 환하게 빛나는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아니 너다

-곽효환-



04



18



22

인하대병원

Mar

+

Apr 2016 Vol.116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한 걸음

- 스페셜기획**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04 봄 햇살처럼, 훈훈한 좌담회
- 08 병동 24시
- 11 고객의 따뜻한 편지

사랑 두 걸음

- 12 **Today INHA**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선정
- 14 복잡한 코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요
- 16 **Health touch**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이
-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7 - 화수동
- 22 **Special people** 봄날 돌아온 아침 연인, 가수 유 열
- 24 **INHA Post** 알파고와 ' 쌤 ' 타야 하는 이유

나눔 세 걸음

- 26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⑤ - CPR Contest
- 28 **INHA Focus** 보호대상아동 의료지원
- 30 **인하심포** 승봉도에 전하는 따뜻한 손길
- 32 **특특 약물상담** 올바른 소아약 복용법
- 33 **인하 리포트** 수인선 타고 인하대병원 가볼까?
- 34 **병원 탐방**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병원장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파랑새 소식** 파랑새 소식
- 39 **Info desk** 건강교실, 교육안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표지 봄, 다시 피어나야 한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좌담회



다시 피어나야 한다!

분명 가야 할 길은 맞다.

그 길을 우리는 한 발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고, 많은 고민을 한다.

환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행복으로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성숙함은 모범적으로 잘 대처한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포괄간호서비스'로, 그리고 지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명칭을 확정하여 쉽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선두주자 역할을 기꺼이 선택한 우리, 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

참석자_ 간호부 | 함영주 수간호사 · 박진아 간호사 · 정지혜 간호사 · 윤형순 간호조무사

미래전략팀 | 김동현 대리 원무팀 | 김종철 차장

진행 · 정리_ 이정희 에디터 사진_ 송인혁 실장 / 다뉴스튜디오



진행자 요즘 인기폭발인 드라마에서 군인이 된 이유를 묻는 남자 주인공은 '누군가는 해야 하나까' 라고 답합니다. 이 대사를 보면서 오늘 좌담회에서 만날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김동현 대리 오늘도 병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전 병원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진행하라고하실 정도로 관심도 많으십니다.

김종철 차장 우리 병원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면적으로 한다 하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우리 원무팀도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공단본부장을 만났는데 이번 정부의 추진 사업 중 하나가 포괄간호서비스이고 2017년이 되면 모든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로 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박진아 간호사 둘째 출산을 위해 휴직 중일 때 포괄간호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저 병동은 불쌍하다' 등 심란한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복직하면서 12층 포괄병동으로 막상 와서 보니 다르더라고요. 환자와 소통간호를 하니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윤형순 간호조무사 저는 11년 동안 병동 관리원을 하다가 간호조무사 생활을 시작한 것은 1년 3개월 정도 되었어요. 포괄병동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간호조무사 공부를 준비해서 2014년 자격증을 땀습니다. 제 만족은 물론 일에 대한 보람까지 있으니 참 좋습니다.

병원이 손해 보더라도 인천시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함영주 수간호사 당시 최초라는 것과 막연함 때문에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병원만의 특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포괄병동을 시작할 때 집중치료실처럼 보호자가 없이 간호하는 시스템을 병동으로 가져오면 환자 케어를 하는데 접근하기 쉽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현 대리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우리 병원만 선정된 것입니다. 요양병원도 아닌데 이런 서비스가 시도해야 하느냐는 등 병원 내 반대도 많았습니다.

2014년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2015년은 수가로 바뀌면서 고지한 수가가 적어서 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소득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병원장님은 인천시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인천지역의 거점병원, 또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작했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함영주 수간호사 진료과에서도 반발이 심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죠. 보호자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함영주 수간호사

"저 환자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케어 하는 것이 진정한 포괄간호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혜 간호사

"엄마가 이직하지 않겠냐고 물으셨죠. 우린 병수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로서 환자가 혼자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능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병수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알아야 하는 포괄의 올바른 개념이죠."

한 고민 등으로 우리 병동으로 처방을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의국 회의나 회진 시간에 교수님들께 포괄병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했어요.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불안한 것은 당연한 거죠.

입원 전문 간호는 받지만, 수발은 아닙니다!

진행자 환자가 보호자에게처럼 편하게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지혜 간호사 커피를 타 달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케어 하는 것이 포괄간호이거든요. 또 어떤 남자 환자분은 돈을 줄 테니 속옷을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었어요.

함영주 수간호사 정지혜 선생님 많이 당혹스러웠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정지혜 간호사 급한 거 아니니까 보호자 오실 때 사올 수 있도록 연락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당혹스럽긴 했지만, 환자나 저하나 처음 하는 시스템이니까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영주 수간호사 이름처럼 지혜롭게 잘 하셨네요~(일동 웃음).

진행자 매 순간 1초가 불안하고 환자안전사고가 걱정이죠?

함영주 수간호사 가장 우려한 부분이 바로 환자안전사고였어요. 30분마다 병실순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죠. 근무 시작 전에는 '해피 라운딩'을 하면서 환자의 요구사항을 파악과 낙상 관



박진아 간호사
"기존의 간호는 투약, 혈압 측정 등 업무 중심의 일이었다면 포괄은 신체적, 문화적, 정서적 등 모든 것을 포함한 환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현 대리
"우리 병원의 대원칙은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병원장님은 강조하십니다. 더욱 나은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편해지고자 함이 아니죠."

입 으로 구분합니다.

윤형순 간호조무사 수술하신분의 경우 배설관리, 개인위생관리, 운동, 검사할 때 이동 등의 간호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에서든 그렇고 저도 좀 걱정했지만, 부모라고 생각하니 되더군요. 신규간호사를 보면 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함영주 수간호사 맞아요. 윤형순 님의 그런 마음이 옆에서도 느껴 집니다. 환자가 퇴원하면서 딱 간호조무사님을 지칭하셔서 '감사했다, 고맙다'는 표현을 하세요. 환자가 급성기일 때는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간호하고 회복단계에서는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이 함께 환자의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보호자가 꼭 상주해야 하는 예도 있다

함영주 수간호사 우리나라는 가족이 병간호해야 한다는 '정 문화'가 좀 강하죠. 부득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대로 보호자상주요청서를 받아요. 보호자가 귀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예도 있어 환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간병문화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도 메르스 때문에 많이 이해하시는 편입니다.

박진아 간호사 '뉴스에서 봤어요. 버스에서 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걸 보면 홍보가 많이 되고 있음을 느껴요.

함영주 수간호사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컨트롤되지 않는 치매 환자인 경우, 주치의 처방이 있으면 보호자가 상주합니다. 간호를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태변화 때문에 상주하는 것이고, 모든 간호는 간호사가 합니다.

김종철 차장 간호사 선생님은 보호자에게 환자의 특이사항에 관한 문자도 보내주는 등 과거보다 일이 많아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백의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백조의 호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에는 아주 이쁘는데 밑에서는 정신없이 바쁜... 요즘 정말 애쓰시는구나 하고 많이 느낍니다.

병간호문화는 냉정하게,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은 잊지 않기로!

함영주 수간호사 얼마 전 3세 소아가 병실이 없어서 포괄병동으로 입원했어요. 엄마가 포괄이니까 아이를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낙상 위험이 많은 소아이니깐 1:1 지켜보시기만 하고 저희가 다 간호한다고 설명하는 일이 있었습니.

김종철 차장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환자의 치료 부분에서는 좋은데 간호사가 잘해주니까 효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

는 것은 이 제도가 또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흠집 없이 취지에 맞게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진아 간호사 포괄간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를 위해 대학 수업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부르거나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간호사라도 환자를 위해서 간호조무사 일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정지혜 간호사 주변 간호사 친구들은 환자를 몇 명 보는지 가장 궁금해 해요. 그리고 '넌 할 만하나?' 라고 물어오면 저는 '할 만하니까 하지' 라고 시크하게 말한답니다. '내 마누라보다 더 잘해. 더 편하다.', '고마워! 잘 있다' 가 라는 말을 들어본 건 포괄병동에서 처음 이에요. 9년차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간호사 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 정말 요즘 많이 합니다(일동 박수와 감탄).

김종철 차장 모두 거부했을 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었지만, 실제와 차이가 많아서 오히려 우리 병원 간호사가 많은 의견을 냈고 수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운영하면서 규정화된 롤 모델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대리 사실 우리 병원의 색깔은 뭘까 싶었는데 이번에 병원



김종철 차장
"간병문화, 병실문화의 취지 정책 방향은 좋은 것입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지 않다 보니 발길이 뜸해지고 효심이 떨어지는 경향은 참 아쉽습니다. 좋은 취지가 되색되지 않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윤형순 간호조무사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면 까칠했던 환자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전 간호조무사 위치니까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런 안전교육을 반복하면서 염려스러운 사고에 대비합니다.

박진아 간호사 정형외과 병동이다 보니, 낙상 관련해서 특히 많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콜벨을 안 눌러서 발생하는 사고가 더 많아요. 미안해서 그렇다고 하시는 환자에게 안전할 수 있다면 그 것이 더 좋은 거라고 늘 콜벨 강조를 합니다.

진행자 미안해하시는 환자분, 그 또한 진심이겠죠.

한 번 이용해 본 환자가 또 치료 전달체계 다이렉트!

함영주 수간호사 포괄병동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그리고 의사가 3박자가 되어 치료 플랜을 공유합니다. 간호사가 회진에 참여하면서 전달체계가 정확하니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진행자 영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간병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나요?

김동현 대리 간혹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포괄간호의 성격은 전문가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간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함께 환자 중심의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말입니다(일동 웃음).

진행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니까?

정지혜 간호사 간단히 말하면 '위임불가능, 부분적 위임, 전적 위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우리의 지침 규정 등등이 정부정책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선에 우리 간호부 선생님이 열심히 뛰어준 것에 저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생겨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김옥주 차장(홍보실) 우리 인하대병원보는 인천 전역에 1만 부가 전달됩니다.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힘들게 시작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었고 여러분의 노고도 좌담회를 통해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포괄간호 사업에 있어서 우리 병원이 교과서처럼 된다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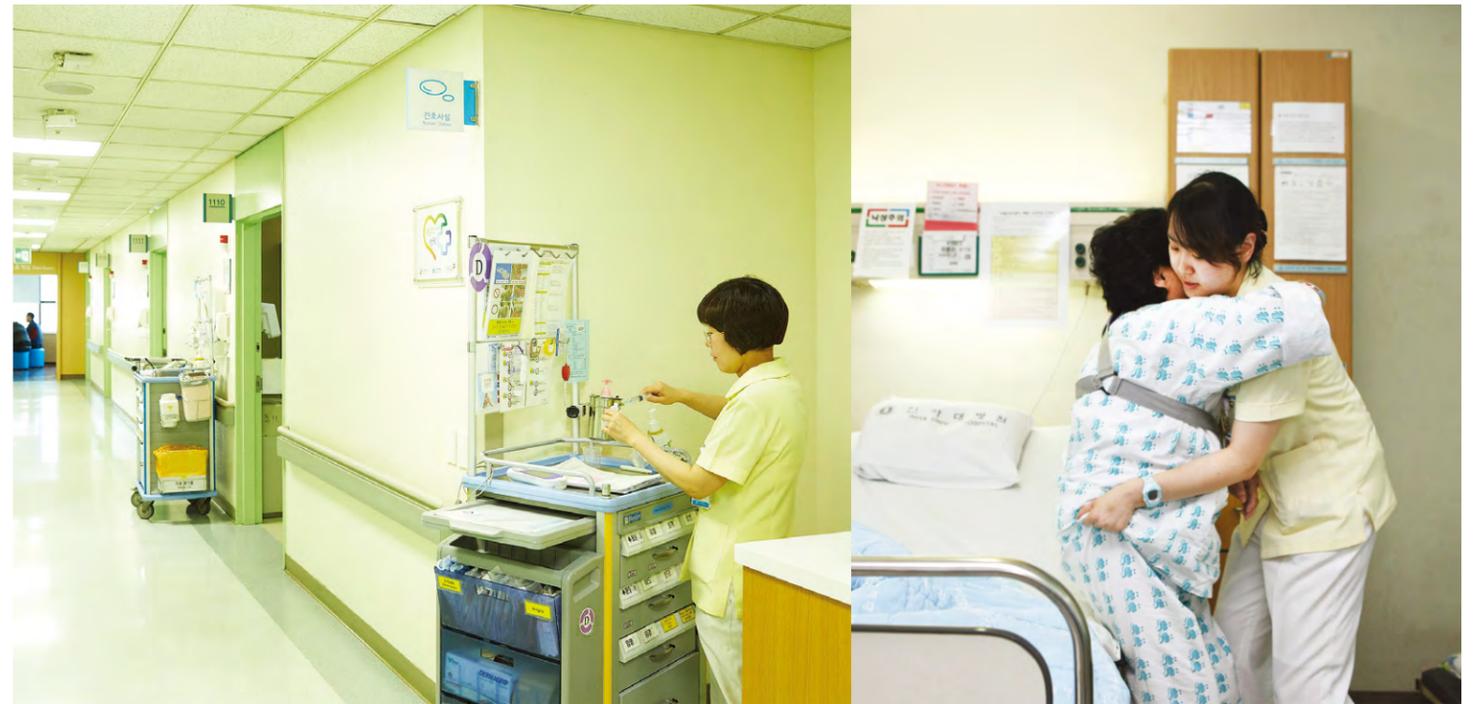
'처음, 첫 번째'는 떨림과 설렘이 묘하게 공존하는 것 같다. 가장 힘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던 간호사는 '힘들보다 보람'을 이야기한다. 업무의 강도는 엄격해졌지만,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 데 한마디의 불평도 없다. 인천지역의 거점병원답게 수익보다 지역 주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열정을 쏟는 당신은 바로 우리에게 '봄'이다.

간호사가 편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전한 병원으로...

이수연 간호부장

모두가 못한다고 할 때 11병동 함영주 수간호사가 해보겠다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 개선 캠페인과 함께 우리 병원에서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환자 중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매칭이 잘된다고 봅니다. 상급종합병원 배치 간호인력 기준이 개선과 함께 인력 충원이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력보충의 의미는 간호사가 편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호사 1명 당 환자 6~7명을 간호할 수 있는 인원 구조로 바뀌게 되면 환자에게 집중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24 HOURS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4시간도 모자라!

인하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지도 어느덧 6년째다. 그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태였던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 3여년의 과정을 돌아켜보니, 환자를 곁에서 함께 보낸 24시간이 언제나 모자란 듯이 느껴지고, 전인간호 실천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곤함 속에서도 환자, 보호자들의 인정과 격려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긍지가 느껴졌던 순간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글 김보경 / 입원간호2팀, 서17병동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동은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내과계 암환자 병동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출근했다. “해피라운딩 왔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이제 와? 어제 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은 자고 출근한 거야? 밥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낮번 근무는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담당하는 병실에는 전신이 허약해서 걷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많다. 식사보조, 개인위생까지 신경쓰다보니 약물 투여 시간이다. 덩둥! 덩둥! 여기저기서 콜 벨이 울린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침상 머리를 올리고 내리고, 체위변경, 통증 관리, 검사와 수술 환자 간호, 퇴원환자 교육, 휠체어와 워커를 이용한 이동보조(화장실 이동 포함), 기침과 가래 배출 도려, 흡인 등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도 잊은 채 일할 때가 다반사다.

오후 12시~2시는 보호자 면회시간

밤새 잘 있었는지, 오늘은 아침 식사를 얼마나 했는지, 의사 회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호자에게 얘기하기 바빠진다.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인다는 보호자 말에 괜스레 뿌듯해진다. 낮익은 얼굴이 반갑게 인사한다. 얼마 전 퇴원한 강○○ 환자와 보호자였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재입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외래 오는 날이라 생각나서 들렀어. 집에 가서도 가끔 생각이 나더라. 고마워서.” 라고 말하며 두 손 꼭 잡고 음료수 한 병을 건네주신다. 사실 부축 없이 걷는 모습에 내가 더 놀랐다. 강○○ 환자는 폐암 진단 후 병리적 골절로 거의 누워만 지내다가 양극성 고관절 반치환술 및 보행 연습 후 퇴원한 분이셨다. 건강하신 모습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오후 2시 15분, 초번 근무자에게 인계를 준비하는 시간

콜 벨이 울린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장 폐색증, 호지킨 림프종으로 급식 중인 70세 남자 최○○ 환자가 갑자기 열이 나고 호흡수가 분당 30회로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즉시 담당 전공 의에게 상황을 알리고 산소 제공, 기도 흡인, 비워관 삽입, 항생제 투여 등 응급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후, 퇴근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음날 오후, 초번 근무로 출근한 나는 치료실로 최○○ 환자를 찾았다. 고유량 가온기습 고유량 산소를 비강 캐뉼러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옵티플로우(optiflow)라는 장비를 장착한 모습이 들어온다.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퇴근 후에도 걱정이 돼서...” “걱정했어? 나 괜찮아.”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모습에 마음이 짠하다.

안타까운 마음은 잠시, 그리고 가슴이 벅차다

폐렴 치료를 위해 입원한 70대 고령의 남자 김○○ 환자는 자식들이 다 직장에 다니고 간병할 사람이 없어 지인 소개로 입원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신체사정과 입원정보를 조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일 중요한 콜 벨 사용법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하고 직접 손에 쥐어 주었다. 면회시간 이후 보호자는 귀가하였고 투약 설명, 시행 예정인 검사 교육, 낙상 예방 활동, 검사간호 및 이동 보조, 개인위생, 체위변경 등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이 끊임없이 24시간 돌본다. 치료 경과가 좋아져 퇴원할 때 즈음 김○○ 환자는 내게 작별인사를 건넸다.



“인하대병원 덕분에 잘 있다 갑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님!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에요! 파이팅! 건강하시어 해요!!”

나는 이렇게 환자들이 회복 후 밝은 모습으로 퇴원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간호는 계속된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도 환자들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끊임없이 제공된다. 30분 간격으로 시행하는 병실순회를 통해 통증이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병실 냉난방 온도는 잘 유지되는지 수시로 체크한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병실 순회 도중 남자 공용화장실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린다. 기침과 함께 환자의 기도로 혈액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객혈이었다.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고 신속히 치료실로 옮겼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전출하기까지 응급 처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최대한 빠른 조치로 살려냈다는 안도감으로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절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림과 동시에 잦은 병실 순회를 간파해서 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밤번 근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안전사고는 낙상

옆의 환자들이 모두 자니까 혹은 간호사 호출이 미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콜 벨을 누르지 않고 침상을 내려오려다 낙상이 발생할 수 있다. 취침 전 낙상 예방 교육도 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늘 생각하지만 더욱더 잦은 순회, 열심히 낙상예방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4시간도 모자란다.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받았다는 좋은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나부터 내가 담당할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고 조그마한 상태 변화에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쌓아야겠다. 또한, 일반 잘하는 간호사가 아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 항상 정진해야겠다. 인천 지역 주민들의 안심 건강 지킴이로서 더 큰 도약을 기원한다.

친절한 간호 서비스를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고마운 제도

휴식은 또 다른 치유입니다' 'Rest time is another healthy time'

좋은 포괄간호서비스의 큰 혜택을 받은 수혜자로서 간병 비용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가족들도 마음 놓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일반화되는 날이 빨리 오기만 바랄 뿐이다. 글 최문순 / 수혜자

2016년을 맞으며 6학년 마지막 해라 올 한해도 보람 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후회 없이 70대를 맞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건강 검진부터 하기로 마음먹고 한 해를 시작하였다.

매년 하던 위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 후 모니터를 보며 설명하는데 다른 부위보다 약간 색깔이 짙은 작은 원 모양이 보였다. 내심 안 좋은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의 결과는 악성으로 보인다고 하며 큰 병원에 가 보라는 말에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인하대병원에서 다시 여러 가지 검사 후 조기 위암으로 확진을 받았고 치료 방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무척 겁이 났으나 외과 허윤석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안전하고 후환이 없도록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2016년 2월 14일 입원하여 2016년 2월 15일 복강경을 이용한 첫 수술로 부분 위절제술을 받았다.

대학병원 입원은 내 평생 처음, 그것도 암 수술로

내 아이조차 집에서 낳은 나다. 대학병원 입원은 내 평생 처음이었다. 수술, 그것도 암이라 하는데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겠는가? 어느 누가 병원을 내 집처럼 편히 지낼 수 있겠는가? 아프고 힘든 이들이 모여 신음하고 앓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다행스럽게 포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강화군이라 남편이 간호하기도 어렵고 자녀들도 직장과 육아 때문에 바빠 계속해서 나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수술 후 며칠은 간병인을 써야 하나 했는데 다행스럽게 인하대병원에는 포괄간호 서비스 병동이 있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후 움직이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내 몸 하나 앓는 것조차 무척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수술 부위가 터질 듯 아팠다. 침대에 눕거나 일어나는 것부터 화장실에 갈 때나 운동을 위해 보행을 할 때도 일거일동이 보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그때마다 콜 벨을 누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달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시간마다 방문하여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었다.

콜 벨을 누를 때뿐 아니라 수시로 점검, 기저귀 갈기까지도

나와 같은 병실에는 연세 많으신 노인 두 분이 계셨는데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스스로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자주 이용하고 기저귀 사용도 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도움을 청해야 했다. 그때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달려와 돌봐드린다. 그뿐만 아니라 부르지 않을 때도 자주 와서 기저귀 상태를 점검하고 누운 위치도 바꿔주고, 환자복과 침대 커버, 이불 등도 바꿔준다. 어떤 때는 혼자 할 수 없어서 두 분이 같이 할 때도 많았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나도 수술 직후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모든 병원에 일반화가 되면 참 좋겠다고 느꼈다. 병원비 이외의 간병 비용의 부담은 꽤 크다. 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으로 부담 없이 병원 생활을 지낼 수 있으며, 병실에 간병보호자가 없으니 복잡하지도 않고 나의 요구에 친절할 서비스를 언제나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제도라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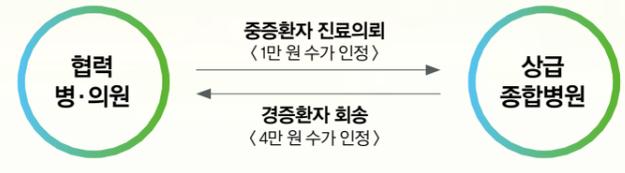
인하대병원 인천지역 유일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선정 지역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주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전국 43곳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 등 35개소가 신청하여 예상밖에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5개소보다 늘어난 13개소가 선정되었다. 경인 지역은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글 이복영 과장 / 진료협력팀

구분	정의
의뢰	1·2차 병·의원 진료 후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
회송	상급종합병원 급성기 진료가 완료된 환자가 1·2차 병·의원에서 연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

과거 의료전달체계에서 '진료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회송 발생 건수가 매우 미흡하여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1단계 진료기관(병·의원)과 2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의료자원 활용도를 높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 간 진료 의뢰는 내실화하고 회송은 활성화하여 의료 제공 효율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으로 체결된 병·의원 간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에 대하여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하대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 국가정책 '촉진자' 역할로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유일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성공 수행 경험 보유



- 상급종합병원 유일의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
-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역 내 이송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용진군 도서 지역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음압 격리 병실 운영
- 13개 진료과/3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교수직통 핫라인

또한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는 1998년 4월 개설하여 진료의뢰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유지 및 지역 병·의원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환자에 대한 회송 업무를 시행하여 병·의원 간 회송 활성화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진료협력센터 전용 홈페이지(www.inha.com/irc)를 업그레이드하여 전자적(Web) 시스템을 통한 진료의뢰서 작성과 전송, 진료의뢰 환자의 본원 진단검사, 판독검사, 영상초회, 심장검사, 수술, 투약, 퇴원요약, 회송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송 환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미 운영 중이어서 이번 시범사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병·의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환자의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진료의뢰 및 회송 절차

협력 병·의원 : 진료의뢰

1. 의뢰가 필요한 사유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
2. 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상세히 개선된 진료의뢰서 서식 작성 - 의뢰번호, 의뢰사유, 환자 상태, 투약, 검사결과, 특이사항(알리지 등) 상세히 구분하여 작성
3. 진료 내역 기재 및 검사결과지 등 필수 첨부
4. 의뢰서 및 첨부 자료 : 환자에게 발급 또는 상급병원으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송부
5. 의뢰 의사는 의뢰할 협력기관에 사전 연락 또는 해당 기관에 의뢰서를 직접 송부

상급종합병원 : 회송

1. 회송 취지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
2. 진료연계를 위하여 회송서 서식 작성 및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 등 첨부
3. 회송할 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진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회송
4. 회송서 및 첨부자료는 환자에게 발급 또는 회송기관으로 직접 송부

수가 형태 및 수준

의뢰 및 회송

-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하는 병·의원에는 의뢰 수가를 신설, 재진료 수준인 약 1만 원 정도 산정
-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회송하는 경우, 약 4만 원 수준으로 수가를 산정
- 진료기록부 COPY 비용 포함, 영상정보 실비 제외
- 환자는 진료-회송 관련 본인부담금 전혀 없이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회송 이후 기관간 실시간 협진관리

회송 후 환자관리에서 실시간 전화와 화상 협진이 된 경우에는 의뢰·회송 기관 양측에 실시간 원격 자문 수가를 산정한다. 실시간이 아닌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상 의사 간 자문의 경우 우선은 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추후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 협진기관(회송한 상급병원) : 전화 협진 시 1만 원대, 화상 협진 시 4만 원대 수가 산정 예정
- 의뢰기관(회송받은 지역 병·의원) : 전화 협진 시 1만 원대, 화상 협진 시 2만 원대 수가 산정 예정

수가청구의 경우 해당 기관이 각각 심평원에 청구하고 해당 심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해 지급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때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청구하면 된다.

복잡한 코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요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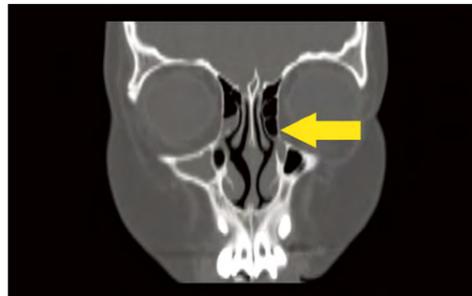
이번호부터는 저희 인하대병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독자를 위해, 본격적으로 '코 건강'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글_ 김영효 교수 / 이비인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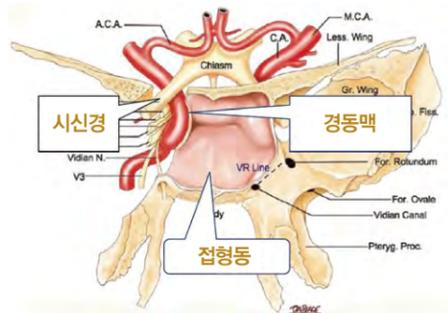
합병증 예방, 더 안전한 '내비게이션 수술'

만성 부비동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보다는, 오늘은 '내비게이션 수술'이라고 하는,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비게이션(navigation)은 원래 영어로 '(배 또는 차량의) 항해, 운항'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줌으로써 차량이 길을 잃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러한 '내비게이션'이 코 안에서도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 안에는 각종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와 눈 사이는 지판(紙板) 말 그대로 종이처럼 얇은 뼈 판 하나로 경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술 중에 안구 합병증이 비교적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지요. 그 외에도 부비동 옆으로 시각을 담당하는 시신경, 큰 동맥의 하나인 경동맥 등의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시력 소실이나 과다 출혈이 일어난 경우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와 눈 사이를 경계짓는 뼈가 매우 얇아 종이처럼 얇다는 뜻으로 '지판'이라 부른다.



부비동 중 하나인 '접형동' 주변으로 시신경과 경동맥 등의 구조물이 지나간다. 부비동내시경 수술 시 이들 구조물이 다치면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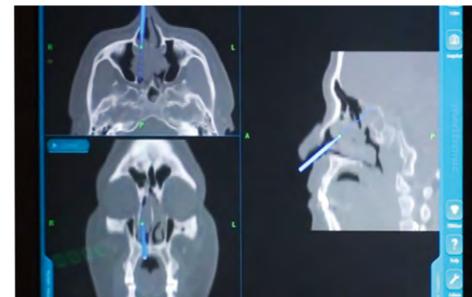
환자의 몸속에서 안전한 수술을 위한 경로

물론 이비인후과 전문의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구조물들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테크닉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 중 출혈이 심하면 내시경으로 코안의 구조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재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로 인해 원래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하다 보면 아무래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하겠지요.

간단하게만 생각해 왔던 부비동 내시경수술, 알고 보면 이런 많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수술인데요, '내비게이션 수술'을 통해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도로 위에서 길을 알려 주는 것처럼, 수술용 내비게이션은 '환자의 몸속에서 안전한 수술을 위한 경로'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코 부분을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



수술 기구의 끝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화면에서 보여준다.

CT 사진을 내비게이션 장비에 입력하면

콧속을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도가 입력되어 있어야 하듯이, 내비게이션 수술을 위해 우선 환자분의 CT 사진을 내비게이션 장비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장비는 CT 사진을 근거로 해서 환자의 콧속을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술 중에 기구를 환자분의 코안으로 넣으면 내비게이션 장비의 수술기구 끝이 환자의 코안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3차원으로 알려줍니다. 따라서 의사는 위험한 부위라고 의심이 되는 곳에서 기구로 해당 부위를 짚어 가면서 CT상에서 정확히 어디인지를 체크하고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게 되지요. 따라서 각종 위험한 합병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수술 의료보험 적용 시작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비게이션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상당히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비게이션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너무 간단한 수술의 경우에는 보험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진료실에서 상담해 주세요).

우리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 최초로 '내비게이션 수술'을 도입하여, 이미 많은 분이 이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중에 축농증 때문에 '부비동 내시경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신다면, 소중한 내 몸을 위해 내비게이션 수술에 대해 전문의와 한 번쯤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효 교수의 코 질환 돋보기(24)' 코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요' 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검색창에서 '코 질환 돋보기'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틀리거나 현혹하기 위한 거짓 정보 주의해야

만성 부비동염,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쉽게 말해 '코감기', 즉 코안에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결국 코안에 물혹이 생기고 '농'이 축적되는 질환이지요. 사실 각종 검색창에서 '부비동염' 혹은 '축농증'을 검색하시면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유용한 정보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틀린 정보, 환자를 현혹하기 위한 거짓 정보도 섞여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같은 '축농증'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약물치료부터 수술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니, 코가 불편하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한 번쯤은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이



‘기침을 달고 산다, 약을 끊을 수 없다, 면역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등은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찾는 부모님으로부터 적잖게 듣는 이야기들이다. 때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출산 과정에 문제가 없고 선천적/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평소 건강한 어린이들에 한하여,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글_ 김동현 교수 / 소아청소년과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질병의 초기 증상이 마치 감기 증상처럼 시작되기에 그런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으나 감기는 의학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으로 정의한다.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면역력도 함께 커지는데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비동염, 중이염, 폐렴 등 2차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빈도도 높은 편이다. 즉, 감기의 빈도가 낮아지면 합병증 발생의 빈도도 함께 낮출 수 있다.

감기의 원인은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감기 환자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다. 또한 리노바이러스도 1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혈청형이 있기 때문에 감기는 끊임없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리노바이러스 이외에 흔히 보는 감기의 병원체는 코로나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이 있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감기는 1년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환절기, 학기 초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1년에 평균 3~8회 정도의 감기를 앓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1년 무상보육 확대실시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각자의 집에서 식구들 간에 주로 전파되던 감기 바이러스들을 아이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중복 감염, 연속 감염과 같은 형태가 빈번해졌고, 계절성이 없어지면서 과거에는 매우 보기 드물었던 한겨울의 수족구병, 한여름의 로타장염도 드물지 않게 되었다. 감염이 성립되기 쉬운 주된 장소는 문화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조리원에서 알게 된 엄마들끼리 각자의 집에서 자주 모임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순위 형제까지 함께 데리고 오는 경우 사실상 보육시설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이 된다. 결론적으로 반경 3피트(약 90cm) 내에서 어린이들끼리 직접 접촉이 가능하고 장난감을 공유하는 모든 환경은 감염이 성립되기 쉬운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린이 감기 이환 횟수는 연간 15~18회로 크게 증가하였고 감기로 인한 2차 합병증의 발생도 확률적으로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고 감기가 무서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홀로 집에서만 지낼 수는 없다.

첫째, 손 위생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감기의 절반은 손으로 전달된다. 부모님이 감기에 걸렸을 경우 콧물, 눈물, 침이 묻은 후 바로 아이들을 돌보거나 외출에서 돌아온 뒤 손을 씻기 전에 아이와 접촉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감기에 걸린 아이의 코를 풀어준 뒤라면 비누로 손을 씻어야 안전하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경우 물로 손을 씻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 세정제를 휴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경우 아이가 무심코 세정제를 먹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성인 의학 영역에서는 감기를 예방하고자 손 세정제를 휴대하는 것이 과하다 여길 수 있으나, 오늘의 주제는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기에 부모가 손위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라 한다.

둘째,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기후에서는 온도와 습도가 계절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 겨울철에는 저온건조한 환경인데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실내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상기도 점막의 건강한 방어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안이 마땅치 않으므로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가습기의 사용이 요구되나 기기가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환기도 중요하지만 행사, 미세먼지로 여의치 않을 경우 HEPA 필터가 장착되고 관리가 잘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손으로 막지 말고 휴지, 손수건 혹은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린 후에 손을 씻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의치 않다면 일반적인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이 역시 감기 정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에게는 성인의 이러한 습관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비말 주의(droplet precaution)의 일환이다.

셋째, 예방접종을 권장 일정에 맞추어 빠지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높고, 국가에서도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누락된 예방접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첫돌이 지나면서부터 추가접종이 누락되거나 매년 접종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직도 드물지 않다. 특히 감기에 의한 합병증의 중증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일명 DIP 백신), 폐렴알균(일명 폐렴균 접종),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일명 뇌수막염 접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일명 독감 접종) 접종이다. 이들 중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는 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양육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매년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를 능동 면역(active immunization)이라 한다.

넷째, 감기가 길어질 때는 잠시 보육시설을 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개 감기는 5~7일 내에 회복하기 때문에 회복을 돕기 위한 휴식을 위해서라도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시 보육시설에 가면 또 감기에 걸리는데 뭐하러 쉬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병증으로부터 회복된 후에 다시 등원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감염, 연속 감염의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단, 이 경우 접촉 주의가 필요한 공간으로의 외출을 줄이는 것이므로 마치 법정감염병 격리하듯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적절한 수분과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

10kg 아이의 총혈액량은 대략 800mL 정도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먹이는 것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아이가 더 힘들어할 수 있다. 단 몇 스푼의 물이라도 아이에게는 도움이 된다. 또한 먹이는 물로 보리차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보리차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절, 아이들에게 물을 끓여 먹이도록 교육을 해도 잘 되지 않아 끓이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보리차를 먹이라고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일 뿐, 보리차만의 특별한 이점이 있진 않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근거가 확보되어 논란이 크지 않아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에게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은 육류이며, 영양소로는 단백질, 아연, 비타민D가 있다.

시간의 닻 깊게 내린 무네미



화수부두

사람만 표정이 있는 게 아니다.
도시도 표정이 있다. 느린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조롱하는 세상에서 화수동은
여전히 아날로그식 표정을 짓고 있다.
바닷물이 넘어 들어 왔다고 해서 '무네미'
라고 불렀던 이곳은 한때 바다에서 건져
올린 온갖 생물로 인천에게 젓을 물렸다.
인천의 개발 청사진에서도 비껴나 있는
덕분에 어느 때 가도 냄새와 소리로
인천인의 몸속에 체화된 강렬한 추억을
이끌어내는 몇 남지 않은 곳이다.

글·사진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동구 화수동 '183번지'

우리는 이제 동구 화수동 '183번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곳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태동한 곳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산업화 시절의 노동운동과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의 불씨를 키워온 곳이다. 1961년 9월 미국 감리교의 조지 오글 목사는 화수동 183번지의 낡은 초가를 구입해 '인천산선(인천도시산업선교회)을 설립했다. 그는 추방되기전 까지 이곳에서 한국인 목회자들과 함께 빈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인천산선은 김근태 등 유력한 민주화 운동가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화수동 주변에는 동일방직, 대우중공업(현 두산인프라코어), 이천전기, 한국유리 등 큰 공장들이 많이 있었다. 선교회는 산업사회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화해자로서의 사명으로 직접 작업 현장에 들어가 이른바 '노동자 의식화' 사업을 펼쳤다. 한때 도시산업선교회는 '도산'이라 불렸다. 도시산업선교회가 기업에 침투하면 그 기업은 도산한다며 산선을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몰아세우며 끊임없는 감시와 무차별 탄압을 펼쳤다.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화수동으로 출근해 하루 종일 산선이 있던 골목에 어슬렁거렸다.

산선의 노동자교회 자리는 이제 '일꾼교회'와 '사회복지선교회'로 바뀌었다. 교회 현관 입구에는 70년대 까지 49m(15평)짜리 초가지붕 건물이었던 인천산선 회관의 흑백사진과 선교회를 돕던 조지 오글 목사가 미국으로 추방되는 모습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 또한 동일방직 여공들이 피신해 있던 지하방 등 민주화 운동의 흔적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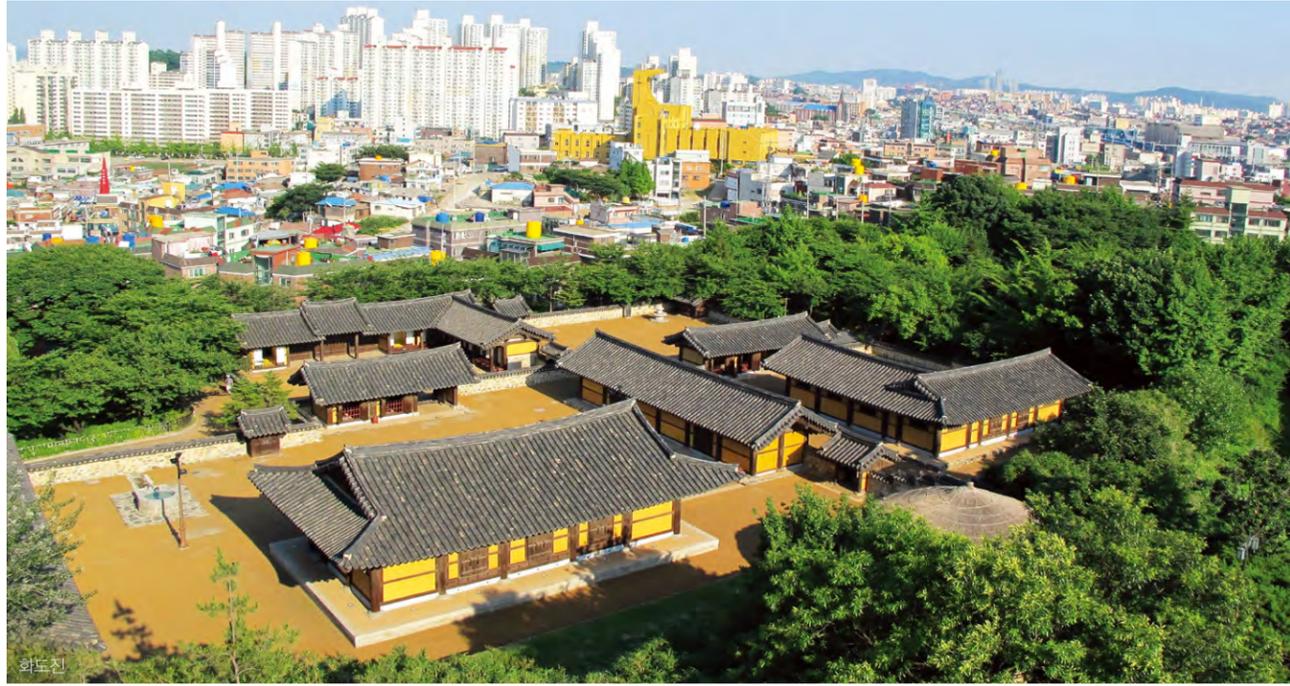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천상(天上)의 식탁, '민들레 국수집'

화수동의 국수집 하나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민들레 국수집'은 국수 맛 때문에 뜬 집이 아니다. 그곳은 주리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 매일 하늘창고에서 식재료를 꺼내 천상(天上)의 식탁을 차려낸다. 2003년 만우절(4월 1일)에 문을 연 '민들레 국수집'은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공간이다. '거짓말' 같이 문을 열어, '공갈'처럼 많은 사랑이 모여들어, '구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믿기지않게' 10년을 버텨오고 있다. 이곳 주인장은 서영남 씨다. 그는 25년 동안 가톨릭 수사(修士)로 지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 수도복을 벗어 던졌다.

"이곳에서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장 오래 굶은 사람이 먼저 먹습니다." 노숙인이나 배고픈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줄서기 경쟁에서 밀려난 꼴찌들이다. 이곳에서나마 줄서기와 눈칫밥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서 씨의 깊은 배려가 깔려 있다. 낡은 식탁 하나로 시작한 가게는 24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넓어졌다. 최근 바로 옆에 공간 하나를 더 마련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찾아오는 손님은 400명에서 500명 정도. 하루 짓는 쌀만 20kg짜리 예닐곱 포대를 풀어야 한다.

'민들레 국수집'에는 정작 '국수'가 없다. 초기 식단은 국수였지만, 밀가루로는 '손님'들의 허기를 달랠 수 없어 메뉴를 변경했다. 언젠가 모든 이들이 배고프지 않은 그날, 국수는 그저 간식으로 내놓을 수 있길 바라며 가게 이름도 국수집을 고수하고 있다. 중년의 남자 한 명이



화수동 사람들이 동인천역 방향으로 갈 때 반드시 넘어야 했던 화도고개

옛 화도고개

강화부동산

'민들레 국수집과 서영남 씨(오른쪽)



검은 봉투 하나를 식탁에 슬쩍 놓고 간다. 아이스크림이 가득 담겨져 있다. “저분, 기장님이세요”, “기장님이요?”, “예, 대한항공 조종사예요.”

서울 등촌동에 사는 윤종원 씨는 비행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한다. 5년 동안 계란말이를 도맡아 만들어 이제는 계란말이의 달인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다.

화도진(花島鎭)과 무네미의 쌍우물

화수동 언덕은 요새였다. 외국함대와 상선 등 이양선(異樣船)이 인천 앞바다에 자주 출몰하자 조선 정부는 고종 16년(1879)에 강화도에서 캐운 돌을 이용해 화도진(花島鎭)을 구축했다. 화도진은 묘도(맹이부리)북변포대, 호구(논현동)포대 등 인천 해안선을 빙 둘러싼 포대들을 예하부대로 둔 야전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다. 1894년 10월 말경에 폐쇄됐고 광복 전에 인근 지역이 매립되면서 터는 완전히 그 자취를 감췄다. 화도진은 지난 1988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화도진도(花島鎭圖)’를 토대로 복원됐다.

100여년 전 화도진은 소나무 숲으로 뒤덮였고 바닷물이 진지 바로 밑까지 밀려들어 왔으며

제물포(현 도심지)로 통하는 한 줄기 오솔길이 화도고개를 넘어갔을 뿐이라고 전해진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화도진 언덕에 올라서면 영종도와 작약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지금도 고층 아파트와 공장들 사이로 어렴풋이 바다가 보인다. 오늘도 화도진은 100년 질곡의 역사를 품은 채 앞바다에 떠있는 ‘이양선’들을 그렇게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

화도진 뒤쪽 동네로 내려오면 쌍우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인천 향토지에서조차 이 우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다만 화도진도에 우물 정(井)자가 표기된 정도다. 무네미의 쌍우물은 맑고 시원해서 화도진 병사들도 길어다 마셨다는 얘기가 전해져 온다. 안타깝게도 두 개의 우물 중 건너편 우물은 민가가 생기면서 없어져 지금은 명칭만 쌍우물일 뿐이다.

“물맛은 좀 짠어. 그래도 물이 잘 나와서 만석동, 송현동에서도 물지게 지고 와서 하루종일 줄 서서 퍼갔지.”

19세 때 이 동네로 시집와서 50년 넘게 근처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가 우물의 과거를 전한다. 지금은 우물 뚜껑이 굳게 닫혀져 있고 특이하게도 우물 몸통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다. 가끔 그 꼭지를 통해 물을 빼버릴 정도로 우물은 여전히 원기왕성하다. 매년 10월 살아있는 이 우물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쌍우물축제가 열린다.

강화부동산 그리고 도시의 오지(奧地)가 된 화수부두

화수동은 아직도 주변에 공장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고나는 동네다. 이런 동네에 복덕방은 여전히 중요한 필수업소다. 한쪽은 쌀가게, 다른 한쪽은 복덕방을 하는 강화부동산도 그 중 하나다. 사장 김송자(75) 할머니는 1978년에 가게 문을 열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쌀을 사러왔다가 동네 셋방 사정을 물어보곤 했다. 평소 귀동냥을 해서 들은 정보로 이 방 저 방을 소개해 주곤 했다. 김 할머니는 아예 ‘강화복덕방’ 간판을 내걸었다. 물론 자격증은 없었지만 하루에도 두세 건은 거뜰히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에게는 낡은 다이어리 수첩이 10여 권이 있다. 그 수첩에는 30여 년 동안 거래한 매물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다. 수첩 하나를 들쳐봤다. 백구두 할아버지, 이빨 빠진 키 큰 아저씨, 예쁜 제주도 색시...’ 등 신체적인 특징을 적어 놓았거나 혹은 ‘경숙이 이모, 봉섭이 누나...’

화수동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날까지 두 평짜리 복덕방 책상에 놓인 할머니 다이어리 수첩에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들이 계속 채워질 것이다.

화수동을 화수동답게 했던 것은 화수부두다. 화수부두는 6,70년대 연평도 조기잡이 배를 비롯해 웅진, 강화, 충청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가득 실은 배들이 드나들던 우리나라 3대 어항이었다. 선박의 주소지는 덕적도, 연평도 등 섬이었지만 생선을 판매하는 곳은 화수부두였다. 수협공판장, 얼음공장, 식당 등이 즐비했고 새우젓 배들이 입항하는 날이면 큰길까지 비릿한 난장이 서곤 했다. 여름날 인근에 사는 아이들은 얼음공장에서 선박으로 나르는 공중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얼음조각을 주워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이제 화수부두는 문명도, 문화도, 세인의 관심도 모두 비껴 간 안쓰러운 부두가 되었다. 옛날의 화려한 모습은 오간 데 없고 고달픈 삶의 흔적만 곳곳에 남아 있다. 이제 공장과 복합 개발로 포구로서의 여백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림자 길어진 시간, 부두를 빠져 나오는데 어디선가 추억이 스며있는 비란내와 뱃고동이 바람에 실려 왔다.



쌍우물

그때, 이곳 화수동



서울식당 가장 인천적인 곳, 화수부두에 '서울' 간판을 단 식당이 있다. 40여 년 된 서울식당은 북 잘하는 집으로 유명하다. 주인장 안문숙 할머니(85)가 직접 담아 온 장으로 북탕을 만든다. 북은 강원도 주문진에서 살아있는 것을 직송해 온다. 인천에 새로 부임하는 고위공직자나 밸런트들이 많이 찾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고 20~30년 넘게 이곳을 드나드는 단골손님들이 많다.

인천부림공중욕장(부영탕) 우리나라에 대중욕탕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24년 평양에서다. 부(府)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 관리인을 따로 임명하였다. 인천에서는 1932년 신화수리(화수동)에 148.8㎡의 규모로 부림 공중욕장이 설립되었다. 욕탕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 화도교회 선교원이 들어섰다.

황해도평산소놀이굿 황해도평산소놀이굿은 무당이 소 모습으로 꾸미고 농사의 풍년과 장사의 번창,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며 노는 굿놀이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 동구에는 황해도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을 통해 이 놀음곳이 전승되고 있고 화수동에 보존회가 있다. 화도진에서 매년 황해도평산소놀이굿을 공연한다. 인천시 중요 무형문화재 제90호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침 연인 '쉽'이 있어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침 9시, KBS2라디오 해피FM 스튜디오에서는 '두근두근 콩닥콩닥' 설렘이 시작된다.

9년 만에 아침 연인으로 돌아온, '매일 그대와'의 DJ 가수 유열 씨와 팽팽하게 터지는 꽃망을 찾아 '봄 마중'을 나섰다.

유열 씨는 지난해 가을, 메르스 의료기관 순회공연인 '당신을 위한 콘서트'로 인하대병원을 찾아 감성 발라드로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주기도 했다.

에디터 이정희



메르스 의료기관 순회공연 때 인하대병원을 찾은 유열 씨의 사인과 메시지 / 정통음악 방송으로 친해지며 '쉽'을 주고 싶다는 가수 유열

2016년 그의 화두는 '휴식'이었다

“성장한다는 거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가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서 나도 성장해가는 것 아닐까요? 눈부신 경제적 성장은 했지만, 철학적 성장이 따라주지 않아 문화의 부재가 있다고 봐요. 어제 행복했다가 오늘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건 잠깐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소유의 기쁨', 이런 거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9년 만에 라디오로 돌아온 이유를 물었더니 그의 답은 그랬다. 10년간 어린이 공연 문화에 애정을 쏟아낸 그는 이기는 법만 가르쳐주는 사회 환경에 울컥하며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걱정한다. '생각하고, 꿈꾸고 행복한 고민을 해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철학적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먹고살기 바쁘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사교하게 해주고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사회 여러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문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그다. 이런 그의 답답함이 오래되자 가슴에 화도 남고 호흡도 거칠어짐을 느꼈다. 그래서 2016년 그의 화두는 '휴식'이었다.

라디오 복귀는 나를 돌아보는 힐링 타임

마구 달려온 그에게 '쉽'을 권한 건 아내였다. 10년 동안 원 없이 해왔으니 제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다. 그런데 2016년 새해가 되면서 라디오 DJ 제의를 받은 것이다.
“아침 라디오가 한편으로 회복이나 쉽의 시간이 되면 어떨겠냐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내죠. 오~ 생각을 바꾸니까 그게 일이 아니고 행복이야~.”
아내 말대로 라디오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자고 생각했다는 그에게 '참살이'를 물었다.
“마음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이 있어야 하고 그 '쉽'은 고요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죠. 맑아지면서 가만히 가라앉는 것이 보여요. 내가 내려놓을 것, 집중할 것, 용서하고, 용서받

을 것 등이 보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몸이 반응합니다. 육체적 건강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병이 생기는 거 같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자신한테 맞는 적당한 운동을 찾고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나에게 완전한 완벽한 웃음을 선사해 주는 존재

“그렇죠. 최고의 예능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나 '런닝맨'에서 나한테 내민 반가운 손을 잡은 거죠. 덕분에 '쿠니쿠쿠 삼촌'이 됐잖아요. 하하하.”
내로라하는 프로그램의 출연 제의를 받아들여 처음 예능방송에 데뷔한 그다. 방송에서 '복숭아 아들' 동화책을 읽어주며 울었다고 고백한 그의 어린이 감성은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동화책이 정말 예술이다.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철학적(?) 예능의 진수까지 더했다.
그리고 보니 과거 인터뷰 때 풍졌던 '모범생 효자 이미지'는 찾을 수 없다. 가수 이문세, 이수만과 함께 '마삼트리오'라 불리며 80년대를 평정한 원조 감성 발라드 가수인 그에게 예능감까지 더해준 데는 15살 차이의 아내와 3살 된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인간미 있다, 가까워진 느낌이다.' 등의 댓글이 시청자 게시판을 메운다.

요즘 그는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태극권을 다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들과 잘 놀아주기,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하기, 아내와 여행했던 곳으로 아들과 함께하기 등등 그가 하고 싶은 일에는 가족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1986년 대학가요제로 데뷔한 그는 올해 30주년을 맞는다. 좋은 음악과 함께 하는 공연, 어린이 공연, 어린이 문화 계몽 운동도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가수 유열 씨는, 돌아온 '아침 연인'으로 매일 부활하며 정통음악방송으로 친해지는 '쉽'을 주고 싶다.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24시간 일해도 지침, 피곤 모르는 알파고와 흠칫, '썸' 타야 하는 이유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의 일격에 대한민국이 오랜만에 대동단결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드라마 '미생'으로 친숙해진 바둑은 '응답하라 1988'에서 이창호 9단을 본뜬 캐릭터 등장에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국 중3 엄마들은 난리다. 알파고가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고', '이세돌이 왜 알파고등학교 학생과 바둑을 두냐?' 등의 유머 글이 게시되면서 실제 알파고(高)는 캐나다에 실존하는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알파고는 바둑 팬을 떠나, 온 나라의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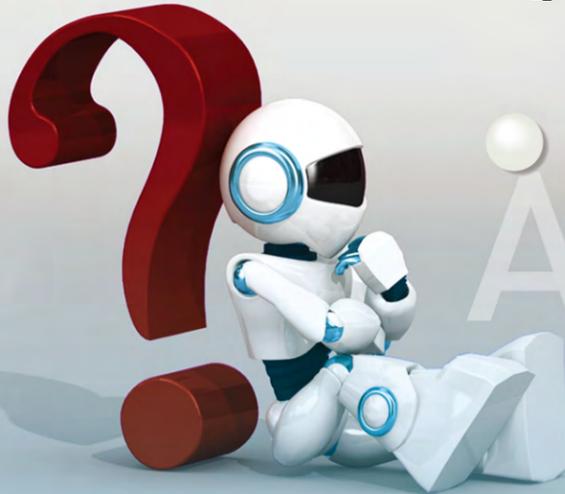
글_ 편집부 // Libxml and element callback function

```
static void EndElement(void *voidContext,
                      const xmlChar *name)
{
    Context *context = (Context *)voidContext;
    if (COMPARE((char *)name, "title"))
        context->addTitle(name);
}

static void handleCharacters(Context *context,
                            const xmlChar *chars,
                            int length)
{
    if (context->addTitle)
        context->title.append((char *)chars, length);
}

// Libxml PCDATA callback function

static void Characters(void *voidContext,
                      const xmlChar *chars,
                      int length)
{
    Context *context = (Context *)voidContext;
    handleCharacters(context, chars, length);
}
```



기원 다니지 않고 딥러닝 알고리즘 통해 바둑 배운 알파고

알파고는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업체인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다. 알파고라는 이름은 구글의 지주회사 이름인 알파벳과,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글자로 최고를 의미하는 '알파(α)'와 '碁(바둑)'의 일본어 발음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Go'를 뜻한다.

알파고는 한국 기원에 다니진 않았지만,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바둑을 학습한다.

42cm(가로) × 45cm(세로) 장방형의 크기에 19×19 패스에서 벌이는 바둑에서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보다도 많다. 바둑의 모든 수를 일일이 연산할 수는 없다. 사람의 직관이 바둑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수만 직관적으로 추려낸 후 검토해서 '신의 한 수'를 찾는 거다.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승리한 알파고의 새로운 점은 딥러닝 기법

을 확률적 트리 서치 알고리즘과 결합했다고 한다. 또한, 알파고의 서로 다른 버전 간의 대국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강화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학습에 강화학습 등 몇 가지 아이디어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하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확실히 탁월한 영역은 연산이다

바둑의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흰 돌과 검은 돌을 번갈아 놓아 상대의 돌을 들어내거나 공간을 둘러싸 '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바둑이 인공지능의 도전 과제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복잡성 때문이다. 도전하기엔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다. 체스는 이미 지난 1997년 인간이 컴퓨터에 정복당한 영역 중 하나다.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바둑은 여전히 컴퓨터에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확실히 탁월한 영역은 연산이다. 그러나, 지구의 모든 컴퓨터 프로세싱 파워를 끌어모아도 바둑의 모든 수를 연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인공지능이라 해도 말이다.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체스와 달리 바둑은 자유롭게 돌을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게임의 판이 더 크고 이를 숫자로 풀면 막대한 숫자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10의 170승에 달하는 바둑판은 우주와 비교하며 복잡계라고 하는 것이다.

Tip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 두뇌처럼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패턴을 찾아내서 인지하고 추론, 판단하는 인공 신경망 기술
트리서치(Tree search) 선택지 중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알고리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알파고는 영화 176편과 1,202개 방송 채널 동시 시청하는 능력자

알파고는 사람처럼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수만 연산하도록 했다. 비결은 컴퓨터 과학기술 '트리서치'다. 알파고는 트리서치를 활용해 우주의 원자보다도 많은 경우의 수를 10만 개 수준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사람이라면 10만 개라는 경우의 수를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겐 그리 많은 수가 아니다.

알파고는 CPU 1,202개, GPU 176개를 지닌 슈퍼컴퓨터로 10만 개 경우의 수 가운데 최적을 찾아 대국을 펼친 것이다. 시스템의 금액으로는 100억 원이 넘고, 동시에 176개의 화면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장으로 본다면 영화 176편을 동시 상영하는 것이고, 1,202개의 채널의 방송을 동시 시청하는 능력자인 셈이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차도남, 알파고!

'알파고 vs 이세돌'의 바둑 대국을 지켜보며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간절히 기술을 갈망하면서 두려움을 동시에 품는다. 로봇의 빠른 계산이 인간이 미칠 수 없는 어려운 세계라면 아이러니는 또 인간의 영역은 아닐는지.

'인류가 진 게 아니고 이세돌이 진 거다'라고 인정한 이세돌 9단은 북기하면서 바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하나 놓았던 바둑돌의 촉감을 기억하며 아프고 기쁘고 행복할 거다.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일상을 엄청나게 바꿔놓았듯,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날이 머지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착하게 조정하면 되는 거다.

온 국민은 3관재 지고 있는 이세돌을 응원했다. 4국에서 첫 승리를 한 그는 한 판을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4패 1승을 즐기는 모습, 인공지능 알파고는 이해할까?



전화인터뷰

휴보 아버지 **오준호 교수** | 카이스트 휴보노이드 로봇연구센터 센터장



사람답고, 기계답게
"사람이 잘 하는 일,
넘겨주지 않으면 된다!"

데미스 허시비스(40)를 검색하면 알파고의 아버지로 뜬다. '오준호 교수(2015년 7·8월호 인하대병원보 24/25p 인터뷰 참조)'를 검색하면 '휴보의 아버지'로 뜬다.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시름에 잠긴 우리에게 '세계재난로봇대회'에서 대한민국 '휴보'가 1등 했다는 낭보가 들렸다. 알파고를 만든 것은 사람, 사람에게 진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도 아하도 아니라는 '우리의 휴보 아버지, 오준호 교수'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실는다.

온 나라가 충격이다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 VS 못하는 것'을 경쟁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컴퓨터랑 양산 시험을 하고, 자동차랑 달리기 시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둑은 러닝할 때 입력되는 정보가 매우 정확하므로 알파고가 학습하기에 적절하고 유리한 대상이다. 또, 프로그래밍 된 것에 반응한 것인데 그걸 보고 '판세를 읽었느니, 대마를 쫓아간다느니' 하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컴퓨터는 똑똑해 보이지만, 그것이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컴퓨터가 만일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면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우면 그만이다.

알파고는 천재 이세돌보다 지능이 좋은 것인가?

'인공지능'이란 본래 제한적 의미의 전문용어인데, 일상에서 마치 사람의 지능처럼 생각하는 갯이 있다. 로봇의 지능은 각도를 달리한다. 로봇은 '장애물을 피해 가는가, 환경에 제대로 반응하는가, 사물을 인식하는가' 등 사람한테는 당연한 이것도 지능이라고 보니까 사람과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로봇과 사람의 지능,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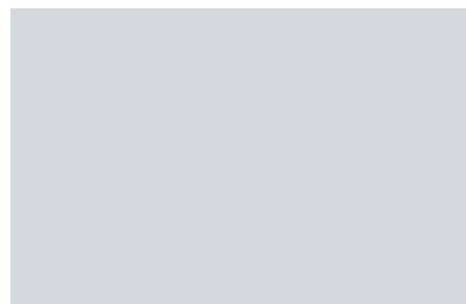
그렇다.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다. 이것은 세상의 정보를 다 긁어다 놓고 그로핑 하는 거다. 사람은 직관이 있고 적은 양의 데이터로 전체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해한다. 결과는 같아도 원인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결론 접근 방식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다. 마치 똑같은 고양이 그림자가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의 것인지 아니면 종이모형의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

로봇 시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추론과 계산은 알파고가 더 잘하고 이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건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날로그적 부분이 사람에게 더 강조될 것이다. 육체, 정신노동을 로봇과 AI가 대신한다면 오히려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도 있다. 많은 환자기록의 데이터로 불치병에 관한 패턴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등 의료를 비롯해 주식, 법률 분야 등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은 로봇이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의미를 깨닫는 것은 인간이다. AI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사람답고 기계는 기계다워야 한다. 사람이 잘하는 일을 기계에 넘겨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INHA CPR Contest



인하대병원에서는 SOS(Survival Of Inha Safety)를 주제로 제1회 INHA CPR Contest를 개최하였다.

BLS(Basic Life Support ; 기본심폐소생술) 4팀, ACLS(Advanced Cardiopulmonary Life Support ; 상급심폐소생술) 4팀과 NRP(Neonatal Resuscitation Program ; 신생아 소생술) 그리고 인하대학교 간호 학생팀까지 총 10개 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응급상황에 대해 각 부서의 상황과 특색을 반영한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환자를 소생시키는 현장감 있는 상황극을 공연하여 단순한 행사가 아닌 재미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글_ 신정애 팀장 / 이팀

SOS (Survival Of Inha Safety)

다 살렸다고 전해라~!

본 대회 최우수상은 완벽한 시나리오와 정확한 술기, 연기력까지 가미하여 실제와 같은 상황극을 보여준 응급의료센터 '응급하라 2016' 팀이 수상하였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 간호사, 응급 구조사가 한팀을 이룬 응급의료센터팀은 본원 지하 마트에서 쓰러진 환자를 응급 구조사가 발견하여 응급의료센터로 이송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환자를 소생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ACLS의 정석 이론을 가미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금번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선정된 이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뛰어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그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정형외과 포괄병동인 서11병동 'Heart Beat팀'에서는 수술 후 발생한 호흡곤란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상황극을 발표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인하신속 대응팀(INHART : INHA Rapid response Team)', 즉 환자 상태변화 시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즉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적절한 지원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었던 사례를 보여주어 더욱 의미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문의,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임상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었고, BLS, ACLS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들의 활약 또한 컸다.

이번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심폐소생술(CPR :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의 이론과 술기를 완벽하게 하여 우리 병원의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CPR 팀이 가동되어 최고의 팀워크와 신속하고 정확한 CPR을 적용함으로써 환자를 소생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 행복한 환자 경험으로 신뢰받는 인하대병원이 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장이 되었다.

또한 그 동안 JCI 인증과 의료기관인증을 받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한 인하대병원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심정지 상황을 맞아도 우리 인하대병원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여 지역사회에도 공헌하는 인하대병원이 되겠다는 직원의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보호대상 아동 의료지원을 위해 손잡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입니다”

글_ 김시현 차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 어린이헌장 |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빛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1957년 처음 만들어지고 1988년 개정된 어린이헌장은 전문과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어린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택 아동실종사건’ 원영이는 7살의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차갑게 식은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몸엔 차마 입에 담기도 아픈 상처들로 가득 했고,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14년 3월은 원영이의 학대 피해가 최초로 알려진 날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영이 집에 방문 했지만, 보호자의 강한 저항으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5개월 뒤 ‘울산계모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 나라가 분노에 휩싸이고 정부는 2014년 9월에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 된 지 1년 6개월. 평택실종아동 원영이는 차가운 주검으로 우리곁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온 나라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와 방임

우리나라 아동 학대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4곳에 불과하고 기관의 상담원은 360명 뿐입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보호 관련 예산은 2015년 488억 원 에서 2016년 372억 원으

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열악한 구조가 아이들을 학대와 방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가정이 오히려 폭력과 학대, 살인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의료지원

2016년 2월 12일 인하대병원과 인천시청은 인천시 관내에 있는 보호대상 아동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적어도 인천에서만 이라도 더 이상 아픈 아이, 학대나 방임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관내 모든 시설의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수줍게 배시시 웃으며 보조기를 착용한 다리를 제게 자랑하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인하대병원과 인천시청이 함께 진행하는 보호아동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심하게 휘어진 다리를 수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재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한결 밝아진 아이를 볼 때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하대병원과 인천시청은 앞으로 더 열심히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한 생각만 하며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코가 큰 어린이는 코가 커서 귀엽고
 눈이 작은 어린이는 눈이 작아서 귀엽다.
 이 빠진 어린이는 이가 빠져서 이쁘고
 왼쪽 오른쪽 신을 바꿔 신은 어린이는 신기해서 예쁘다.
 서로 다르게 커나가는 어린이
 누가 누가 잘하나? 기 죽이지 말고 모두 모두 잘 하자.
 용기를 주어 밝게 골게 무럭 무럭 자라게 하자.

송근영 | 동시집 까치나무 중 '다르게 크는 어린이'



승봉도에 전하는 따뜻한 손길 '토닥 토닥'

인하대병원은 인천시청, 그리고 용진군과 함께 민관협력 사업인 "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작도를 시작으로 문갑도, 지도, 자월도에서의 의료 지원 활동은 의료 취약지역인 용진군 섬 주민들에게 의료지원으로 '작은 토닥임'을 주는 시간이었다. 3월 22일 승봉도의 따뜻함을 함께 나눠볼까요?

글_ 차진주 간호사 / 서17 병동



! '심 프로젝트' 진행 중 3월 16일은 의료취약지역인 자월도에서 의료봉사를 하였다.

꽃샘추위에 떠난 승봉도, 특별한 기회와 영광

꽃이 피어남을 시샘한다는 3월의 꽃샘추위는 제법 쌀쌀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승봉도 의료 봉사를 위한 의료진 및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관계자분들의 움직임은 분주하고 활기찼다. 인천광역시의와 인하대병원이 공동 진행 중인 '심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용진군의 12개 도서 지역에 무료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4차 무료 진료에 의료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은 나에게 특별한 기회이자 영광이었다.

왕복 3시간 걸려야 병원진료 받을 수 있어

초음파 기계 등의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진료재료를 꾸러 인천항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야 승봉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도심보다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승봉도 및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왕복 3시간을 소요하여 병원진료를 받아보기가 쉽지않은 일을 생각하니 역설적으로 우리가 도서 지역으로 찾아가는 진료가 그들에게 얼마나 반갑고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승봉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닷가처럼이나 순박하고 고우신 어르신들이 이미 마을 회관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계셨다.

마을회관은 순식간에 복새통 이루다

준비해온 초음파 기계와 약품 등을 옮겨 정리해 두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주민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진료를 시작하였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님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진료소가 된 마을회관은 순식간에 진료를 위해 방문한 주민들로 복새통을 이루었다.

이날 주된 진료는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님이 주축이 되어 초음파 검진 및 근골격계 검진,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투여 등이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건강 증진 및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장이 되었다.

농업 종사가 많아 허리, 목 등 근골격계 통증 호소

특히 농업 관련 종사자가 많은 이유로 허리 및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근골격계 소염, 진통 효과를 위한 주사제 투여뿐만 아니라 추가로 추후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준비해 온 주사제 및 진료재료가 부족해졌을 만큼 70명 이상의 주민이 무료 진료를 받았고 그만큼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 취약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람과 옹은 의료행위, 나에게도 성장을 주다

의료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큰 보람을 주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 지역사회에 의료 사각 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인하대병원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병원으로 더 크게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인천광역시의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보람되고 옹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병원 밖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환기의 시간이 되었다.

올바른 소아약 복용법 식사 직전 먹고 우유·분유와 따로 복용



- Q**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영유아에게 약을 먹이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유아의 경우 식사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 약을 복용시키는 보호자와 소아 자신의 생활리듬을 고려하여 복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하루 3번 복용하는 약은 8시간마다, 2번 복용하는 약은 12시간마다 등으로 시간을 맞춰 복용합니다. 또한, 소아는 위장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구토를 잘 일으키고 식후에는 배가 불러 약 먹기를 거부하므로 식사 직전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 Q** 아기가 약을 먹고 토했는데, 다시 먹여도 될까요?
약을 먹고 바로 토했을 경우에는 즉시 다시 먹이도록 하고,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난 후 토한 경우에는 의사 혹은 약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토한 직후에는 뇌에 있는 구토중추가 피로해져서 구토 능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즉시 먹이는 것이 쉬었다 먹이는 것보다 도움이 됩니다.
- Q** 처방받은 가루약을 우유나 분유와 섞어 먹여도 되나요?
약은 우유나 분유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생제의 경우 약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약을 우유나 분유에 섞어 먹이게 되면 맛을 분간할 줄 아는 아이의 경우 우유를 거부할 염려가 있습니다.
- Q** 아이가 처방받은 약은 얼마나 보관할 수 있나요?
처방받은 약의 보관은 약의 제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럽 제제의 경우 미생물(세균, 곰팡이)의 혼입에 따른 오염 가능성 때문에 1달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자주 처방되는 일부 항생제 시럽의 경우, 물과 혼합한 후 냉장보관을 해도 5~14일이 지나면 원하는 약효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로 유효기간이 기재된 약은 기재된 유효기간을 지키시고, 처방받은 감기약 등은 보통 1달가량 보관이 가능하나, 이런 약을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비슷한 증상이 생겼을 때 다시 그 약을 먹이는 것은 올바른 약물 복용 습관이 아닙니다. 연고류 등 외용제의 경우 6개월 이내 안약, 안연고의 경우 1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f. 대한약사회-의약품복용법, 2015 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돌아온 협계열차, 꼬마열차 인하대병원 갈 땐, 수인선 타고 더 빨리! 더 편리하게!~

민족의 애환을 싣고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협계열차', '꼬마열차'로 불렸던 수인선은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기적 소리를 냈다. 무릎과 무릎이 닿을 만큼 좁았던 그러나 나름의 낭만이 있던 추억의 수인선이 쾌적한 복선전철 그리고남인천역은 '송의역(인하대병원)'으로 부활했다.
글_ 신동길 / 교육수련부



수인선 타고 인하대병원까지 가보자!

어느덧 수인선이 개통 한지도 2주일이 지났네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평균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언제부터인가 수인선이 개통하면, 자가운전을 그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고 맘을 먹고 있었지만, 막상 개통하고 나니 망설이게 되더군요. 이유는 집에서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게 싫어서 피가 난 거였어요. 마음을 고쳐먹은 3월 어느 날, 처음으로 수인선을 이용해 봤습니다. 집에서 소래포구 역까지 빠른 걸음으로 걷고 횡단보도 신호대기를 거치다 보니 약 12분~15분 걸려서 전철역 도착, 7시 41분 차를 탑승하여 '송의(인하대병원역)'에 도착하니 19분 정도 소요, 역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서 약 7~8분 정도 출근 시간은 총 약 40분 정도 걸리네요. 월~ 자가용으로 출근할 때와 시간과 별 차이 없네요. 하지만 퇴근 시에는 수인선이 훨씬 더 빠르더군요.

대중교통으로 가까워진 인하대병원

수인선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 수인선 이용이 가능한 교직원들께 이용을 권해드리고자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교직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내원 시 힘들었던 인천 시민들이 우리 병원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수인선이 개통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뿌듯합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수인선 이용하시면 더 빨리, 더 편리하게 인하대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일간 수인선 이용 출근하기' 리얼~ 체험 후기

좋은 점
하나, 자가용 이용 시 늘 걱정되는 사고 불안감 해소
둘, 예측하지 못한 차량 정체로 인한 지각 사태 해소
셋, 현대인의 복병, 운동부족 해소(하루 평균 만 보 이상 보행)
넷,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독서 가능
다섯,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절감(유류비, 주차비 등)

불편한 점
하나, 낯선 날씨 걷기 다소 불편
둘, 간혹 차량 이용 시 주차비 부담



수인선으로 인하대병원 갈 때 : 송의역 하차 → 2번 출구(걸어서 약5분)



돈 있어야 환자? 없어도 치료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최우선, 공공의료 존재 이유

의사(醫師)는 '스승 사(師)'를 쓴다.
'師'자가 붙는 순간 '공공성'을 내포한다. 돈벌이로 생각하는 순간 事(일 사)나 士(선비 사)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조승연 병원장은 말한다. '공공병원 의사(醫師)'라는 직업이 그런 면에서 자랑스럽다는 그다. 후회 없이 만족하는 의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조승연 병원장과의 만남은 시인 윤동주 님이 생각나는 시간이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는 詩 구절이...

에디터_ 이정희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병원장



흔적 없는 병원 역사가 아쉬워

"우리 병원은 연보가 없어요. 역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이 역사 아니겠어요? 기록도 없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역사를 찾아 놓고 싶죠."

조 병원장이 취임 한 2010년은 극단적인 상황이었다고 회상한다. 구도 시인 신희동 중심에 있던 의료원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것은 1997년의 일, 시민의 편리성은 생각하지 않고 땅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돈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해주는 일은 절대 없고 차별 없는 적정 진료를 한다. 똑같은 진료를 가장 필요한 만큼 한다는 뜻이라고 조 병원장은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병원의 목표라고 한다.

'직원 생일날 카드주기'로 소통하다

오랜 시간의 고난은 직원들에게 피해의식만 쌓이게 했다. 우리 병원은 망하지 않고 공공적인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위해 직원과의 소

통을 먼저 시작한 조 병원장이다.

"외부에서 보면 인천의료원은 노조 때문에 제일 고생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원장은 3년, 시장은 4년, 노조는 영원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노조가 강성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병원을 버티는 마지막 힘은 노조가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생각한 것은 '직원 생일날 카드주기'였다. 500여 명의 직원 생일날 어디에 있던 찾아가서 카드를 건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조 병원장은 SNS에 올려 칭찬하기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의 성과에 대한 고민을 한다.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공조직의 고질적인 호봉제, 성과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적정진료를 하는 믿음만한 공공의료 열망하는 시민

3년 전 진주의료원 폐업, 세월호 사건 그리고 지난해 메르스까지 이 안타까운 사건은 전 국민에게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논의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의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메르스 때 서울의 대형 병원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고 공공이 없는 효율성은 사상누각이라고 그는 말한다.

2012년, 새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인천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아젠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조 병원장은 이것은 적정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믿음만한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 열망 아니겠냐고 말한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실손 보험, 의료 부작용 등을 막아내는 게 공공의료의 가장 큰 역할이죠. 적정진료와 표준 진료로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충실해야겠죠. 우리 병원 와서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지 안심하고 물을 수 있게 말입니다."

인하대병원과 적극 협력해서 공공의료 실현

"인천 지역 유일 대학병원이 인하대병원입니다. 감염 환자가 오면 우리가 병원 문 닫고 환자를 봐야죠. 인하대병원은 그럴 수 없죠. 인하대병원을 찾는 중증환자들을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국민의 재난대비는 공공병원의 몫입니다. 재난대응 병원으로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하대병원의 기술적, 인적 지원의 아낌없는 협력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역 대학병원이 아니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지방의료원의 또 하나 골칫거리는 바로 의료인력 수급이다. 그래서 이번 인하대병원과 협약한 '의사인건비 지원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역 내 유일 대학병원으로서 '연구와 교육'의 소임을 갖고 지역 공공의료에 힘써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한다.

공공병원이란 그런 거다

병원 경영의 효율성보다 국가적 재난이 오면 나서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방패 역할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 병원, 누구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조승연 병원장은 돈 버는 의사가 아닌, 공공병원 병원장으로 있을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잘했다고 말한다. 맨 꼭대기 옥탑방 같은 병원장 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만 뜨거운 걸까.

쾌적하게 증·개축한 의료원, 기준입원실을 4인실로 할 예정이지만 다인실 혜택은 그대로다.



인공신장실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국가격리치료 병동과 음압병동 내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인천지역 유일 선정 시범사업 운영으로 지역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주도할 것!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운영 기관에 경인지역은 치열한 경쟁 끝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인천지역은 인하대병원이 유일하다.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은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 의뢰와 회송 과정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간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에 대하여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송 후 환자관리에서 실시간 전화 및 화상 협진이 이뤄진 경우에는 의뢰·회송 기관 양측에 아래 표와 같이 실시간 원격자문 수가를 산정한다. 실시간이 아닌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상 의사 간 자문의 경우 우선은 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추후 수가 적용이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가청구의 경우 해당 기관이 각각 심평원에 청구하고 해당 심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해 지급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때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청구하면 된다.

인하대병원은 시범 사업 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3군데의 상급종합병원 중 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협력병원과의 상생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환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12쪽 참조).

의료원장,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인천광역시 표창 수여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이 2016년 3월 24일, 인천 로얄호텔 본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인천시의사회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천광역시 표창을 받았다.

김영모 병원장은 지난 2014년 3월,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지역에서 사립대학병원 최초로 병원 내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을 발족하여 공공교육, 의료지원, 사회봉사, 해외 의료지원, 민관협력의 5개 분야에 지속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탄 배달 및 쌀 나누기 운동 참여(라이스 버킷 챌린지) 등을 통하여 정답과 따뜻한 인천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김영모 병원장은 작년 한 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동안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인천시, 인천의료원과 함께 공조하여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에도 솔선수범하여 청정의료지역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최초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인하대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인천사회의 지속적인 병문안 문화개선에 앞장서왔다. 또한,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으로 인천 권역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의료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다수 대의원의 추천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인천시 '보호대상 아동 건강한 사회인 육성사업'에 치료지원



2월 12일, 인하대병원은 인천광역시와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 육성사업'에 치료 분야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모 인하대병원장과 양 기관의 주요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 육성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사업의 목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보호시설 아동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 이후, 인천광역시에서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관내 취약아동 발굴과 진료연계를 지원하고, 인하대병원에서는 의뢰 받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진료 후 수술 및 치료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28쪽 참조).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응급보호를 위한 의료지원에 참여

3월 3일, 인하대병원은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과 함께 인천광역시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보호를 위한 의료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료지원은 인천광역시가 '2016년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인하대병원



을 포함한 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과 학대아동의 응급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아동의 발생 시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려고 체결되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를 의뢰한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실시하고,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적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를 준수하며,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은 "점점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통감하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낀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인천광역시와의 공고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인천의 꿈과 미래인 아동, 특히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센터, 전국 평가 2위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4일 발표한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15년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 장비, 인력 확보의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상위 40%, 중위 40%, 하위 20%와 기준 미충족 기관을 선별해 내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125개 기관 중 40%에 해당하는 48개 기관이 '상급' 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전국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중증·응급 환자 치료의 중심병원임을 입증했다.

특히 과정영역 중 중증 응급환자 구성 표준화 지수와 최종치료제공 표준화지수는 전국 1위로 중증 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병상 포화지수 또한 전국 1위를 차지, 응급실 대기시간이 짧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이 지역사회 중증 응급의료환자의 골든타임을 준수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발전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QI 학술대회 개최



인하대병원은 지난 2월 3일, PDP(Process Diet of Inha Project) Festival 를 주제 제13회 QI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2015년 QI 활동을 진행한 총 16개 팀 중 QI 우수사례 구연발표 8팀, 포스터 발표 8팀과 우수 CQI 포스터 발표 1개 팀이 참가하였다. 또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수 지표관리 사례 중 환자 안전 개선성과, 약제팀 선출 업무 개선, 심폐소생술위원회의 CPR 지표관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찾은 주사부위 교환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정맥주사(M)부위 고정법 개선활동'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서8병동이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혈액중앙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서 17병동 연합팀과 ICU 업무개선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2016년 CS 특강 및 CS Expert Group JUMP-UP 워크샵 개최



2016년 3월 3일(목), 인하대병원 CS팀은 CS특강 및 CS Expert Group JUMP-UP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뢰받는 병원의 환자경험관리'를 주제로 한 CS 특강은 전 직원 120여 명이 참여하여 수강하였고, CS Expert Group JUMP-UP 워크숍은 사내 강사와 리더 40명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임소라 대표(B&S communication)의 CS특강, '신뢰받는 병원의 환자 경험 관리'를 통해,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인 환자 경험을 어떻게 관리(Process-oriented)하여 고객 경험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인지를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뒤이어 진행된, CS Expert Group JUMP-UP 워크샵에서는 교육 및 외/내부고객에게 제공되는 CS 이벤트에 대해 열린 조별 토론을 하였다. CS강사가 마련한 그룹별 CS교안은 2016년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CS교육의 초석이 되었으며, CS리더가 논의한 CS이벤트는 소통 및 조직문화 활성화의 장을 마련했다.

재능 나눔으로 만든 큰 행복에 느끼는 보람



2016년 2월 4일, 인하대병원은 인천 송도고 졸업식에 참석하여 과학봉사동아리 'SCV' 학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송도고 졸업생 6명은 고1때부터 3년간 꾸준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환자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물했으며, 학생들이 개발한 환자용 키트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STEAM R&E 페스티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표창을 받은 졸업생은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환자분들께 행복과 웃음을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큰 보람과 감동을 느꼈고,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보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외된 이웃에 먼저 관심을 두는 병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중심병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진실된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졸업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환자 가치 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외과 윤승환 교수, 북미척추학회(NASS) 메인 기제



신경외과 윤승환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척추학회인 북미척추학회(NASS : North American Spine Society)의 홈페이지

지에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 메인으로 게재되었다. 발표 당시 최우수 논문선정과 함께, 매우 훌륭한 발표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NASS 홈페이지의 메인 사진으로 게재되게 되었다.

관련 홈페이지 : 북미척추학회(NASS) - <http://www.nassannualmeeting.org/AM2016/public/enter.aspx>

신경외과 박현선 교수,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제25대 신입회장 선출



지난 2016년 2월 19일 ~20일 양일간 여수 엠블 호텔에서 개최된 '제29차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신경외과 박현선 교수

가 제25대 신입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된 박현선 교수는 198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후 1997년부터 인하대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인하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본 학회는 1986년에 창설된 대한신경외과학회와 한국뇌혈관질환 연구회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 대한뇌혈관외과학회로 개편한 뒤, 2004년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로 인준받은 학회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 수술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학회이다.

혈관내교육센터,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 실시



2016년 2월 17일, 인하대병원 혈관내교육센터(센터장 흥기천 교수/혈관외과는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지역사회 협력병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인하대병원이 주관이 되어 혈관을 찾기가 어려워 정맥주사 치료가 힘든 만성신부전 등의 만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혈관접근술'과 관련해,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의 강의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혈관 접근의 준비 방법', '초음파 검사를 위한 혈관접근법' 등의 강제가 이루어졌다.

인하대병원 혈관내교육센터장 흥기천 교수(혈관외과는)는 “인하대병원은 협력병원 의료진들과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최신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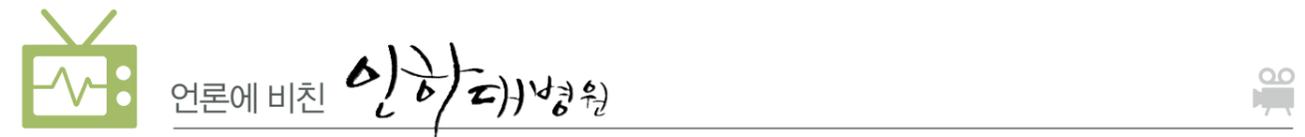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2일, '2015년도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협력병원들과의 지속적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4월 14일(목) 5월 11일(수), 6월 9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 진료 상담실 (032)890-3600, 3638
암 환자 음악 요법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 진료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교육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무료검사 및 금연/영양 상담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4시	신관3층 예방관리 센터 간병술기실	예방관리센터 032)890-2135, 2137

교육 안내

강좌명	제목	일정	문의전화	비고
의료인과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의료인 신규과정 ●의료인 갱신과정 ●일반인 과정	홈페이지 참조 (www.inha.com)	032-890-2130, 2142	등록비는 홈페이지 참조



<p>2016. 2. 12</p> <p>출연: 김영모 의료원장 외 관계자 프로그램: YTN 뉴스 내용: 보훈대상 아동 건강한 사회인 육성사업</p>	<p>2016. 2. 15</p> <p>출연: 이비인후과 김현지 교수 프로그램: TBN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노인성 난청</p>	<p>2016. 2. 22</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프로그램: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내용: 미세먼지 심한 날, 심검실보다 해조류 드세요</p>	<p>2016. 2. 24</p> <p>출연: 정형외과 조규정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내 몸의 중심, 허리를 지켜라</p>	<p>2016. 3. 1</p> <p>출연: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 프로그램: KBS 뉴스9 내용: 우주에서 지구에서, 생물이 '변화' 실험</p>	<p>2016. 3. 2</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비흡연자의 폐암</p>
<p>2016. 3. 3</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프로그램: YTN 뉴스 내용: '삼검실데이'에 몰랐던 삼검실의 진실</p>	<p>2016. 3. 4</p> <p>출연: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원광주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경인방송 <장우식의 시사토크> 내용: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보호를 위한 의료지원</p>	<p>2016. 3. 10</p> <p>출연: 피부과 변지원 교수 프로그램: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내용: 의문의 검은 남자</p>	<p>2016. 3. 16</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건강하게 생선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p>	<p>2016. 3. 23</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프로그램: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내용: '피해 접수' 끝났지만... 숨겨진 '살균제 피해' 더 많아-가습기 살균제</p>	<p>2016. 4. 3</p> <p>출연: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 프로그램: SBS 스페셜 내용: 과도한 당분섭취의 위험성-당뇨 합병증의 정형외과적 질환</p>

파랑새 소식

교육일정은 건강교실 안내 참조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홈페이지 www.inha.com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카페 cafe.daum.net/inhabluebird

유방암 공개강좌 및 제10회 파랑새 정기총회



100여 명의 유방암 환우와 가족들이 모여 유방암 공개 강좌 및 제10회 파랑새 총회를 가졌다. 공개강좌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불면, 우울,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교수의 강자로 진행되었다. 또한, 파랑새 정기 총회에서는 2016년 회장 및 임원 선출에서 백영희 회장이 연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파랑새가 발족한 지 10년이 되는 뜻깊

은 해로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지 20년이 되는 환우가 참석해 본인의 건강관리 노하우를 알려주며 모든 환우의 건강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음 행사

- 4월 14일 आय회
- 5월 체육대회 예정(일정은 추후공지)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신역 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신역 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월, 목	암 다학제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화, 목	화, 목	통합진료: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홍성빈	*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화, 수요일 오후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김소현	*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외과	신석환	*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조영철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부신종양	월, 수, 목	월, 수	*13:30~15:30		
	종양내과	허윤석	*	위암, 소화성 궤양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월, 수, 목	화	서비스진료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최윤미	*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수, 금	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임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목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최정석	*	무통중편도수술, 소아비만외과,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유방암	외과	조영철	*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종양외과	월, 화, 목	월, 목	암 다학제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목	월, 수	통합진료:			
		권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암 다학제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통합진료:			
		외과	김경래	*	대장암, 대장질환, 항문질환	월, 수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화, 수요일 오후		
	종양내과	최선근	*	대장암, 췌장암, 직장암, 항문암, 소화기외과, 대장항문	월, 수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연수	*	유방외과, 유방생물, 미용수술, 미색수술, 피부암이제거	월, 금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목	수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 췌장암,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간암클리닉	중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암 다학제			
		진영주	*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월	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통합진료:			
		안승익	*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월 오후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김원희	*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중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돈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정 석	*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월, 금	화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안승익	*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원희	*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종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원희	*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금			비뇨기암	비뇨기과	김원희	*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곽승민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 목, 금, 수, 목(1,3주)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류정신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금, 수, 목(1,3주)		중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남해성			*	해의연수(2015. 9. 1 ~ 2016. 8. 31)	월, 화, 목, 금, 수, 목(1,3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홍부외과			김정택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금		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윤유한		*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금■)			김원희	*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정신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원형	*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보열증	월, 화, 목	월, 목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진료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임파부종 클리닉 피부암		재활의학과	김명옥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피부과	최광석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신정현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월(1,3,5주), 화	(): 주별 진료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변지원			*	피부 양성종양, 피부암, 흉터, 피부미용, 비듬	목	금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	흉선암	월, 금	월, 금		중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윤유한	*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종양내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종양, 뇌신경외과, 인면경련, 3차신경통	월(▲), 금	수	▲뇌종양, 인면경련, 3차신경통, 상차신경클리닉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박현선	*	뇌종양, 뇌신경외과, 뇌, 뇌안, 뇌안정형, 뇌동맥류, 인면경련, 경동맥협착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수,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준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척추종양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윤순환	*	척추종양(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추 디스크질환	화, 목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수	*	골종양, 인공관절생물, 고관절, 관절염	월, 수			월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이동주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목, 금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권대규	*	종양, 소아정형, 뇌성마비, 외상			화	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소아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소아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기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시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시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원 현황

일자	후원인	후원금	비고
2016. 1	간호부	1,000,000	
2016. 2	휴먼피부과의원	1,000,000	1,000만 원 약정
2016. 2	구지희 님	5,000,000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대외협력팀
- ▶ 문의사항 : 공공금시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2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팀



보건복지부
재인증획득



국제의료기관
재인증획득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지역과 인간을 위한 행복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지역사회 건강 지키는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_365일 전문의 상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사수
외래전문질환센터_여성전문센터, 척추센터, 통증센터, 혈관센터, 뇌신경센터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_대학병원 최초, 간병부담 덜어주는 전문 입원간호서비스
국제의료기관(JCI)인증_병원 전 부문 2회 연속 성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_2회 연속 성공

수인선 승의(인하대병원)역
연장 개통으로
인하대병원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인선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

승의(인하대병원)역 하차 후, 2번출구 이용
인하대병원 방향으로 도보 5분

지하철 노선별 환승역 정보

1호선 : 인천역 (약 5분 소요)
인천 1호선 : 원인재역 (약 10분 소요)
4호선 : 오이도역 (약 25분 소요)
* 수인선은 15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Be Healthy, Be Happy

인하대병원 20주년
INHA UNIV. HOSPITAL

